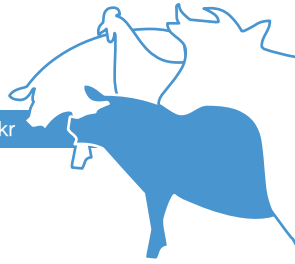




04 추위에 강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그린팜** 개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영양분이 높아 사료가치가 우수한 동계 사료작물이지만 추위에 약해 안전재배 지역이 대전 이남의 남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모내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북부지방까지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그린팜**을 개발하였다.



성과 중부지방까지 재배가 가능한 월동 사료작물 품종 개발

15년 전부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신품종을 육성한 이후 2004년 **코그린**, 2005년 **코스피드**, 2006년 **코원어리** 등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코원어리 등 3개 품종은 5월 상순부터 수확해 이용할 수 있는 품종으로 사료가치가 우수하여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그린팜**은 추위에 강한 장점을 지닌 조생종으로 수확기가 다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보다 7~10일 빠른 5월 상순으로 중북부지역에서도 논을 이용한 이모작 재배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이다.



활용 국산품종으로 수입대체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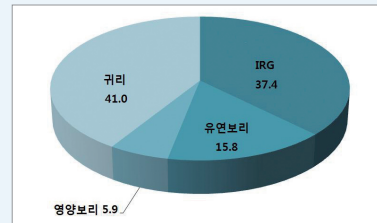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그린팜**은 2013년부터 농가 보급이 가능하며 2014년 국내에 필요한 2천 800t의 종자를 모두 국산 품종으로 대체할 경우 85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조생품종(코원어리) 외국 도입종(Fo, 80)
(품종간 내한성 비교(월동후, '06.5.2 경기인천))



조생품종(코원어리) 논에서 수확
(농가 현장 실증시험 포장('08.5.6 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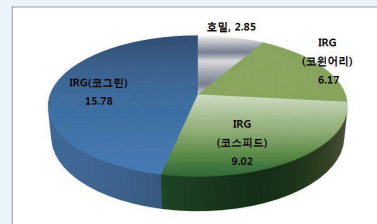
초종간 가축 기호성 평가(건물 섭취율 %)



수확시기가 가장 빠른 조생품종(그린팜)
(품종간 출수시기 비교(천안, 4월 28일))



외국도입 조생품종(Fo, 80)



호밀 및 IRG 품종간 가축기호성 평가(건물섭취량, kg/일/8두)